

심청가, 때론 애잔하게... 때론 웅장하게



이번 무대는 엄 명창의 생애 여덟 번째 완창 무대다

엄경애의 강산제 첫 무대

명창의 귀한 소리를 만날 수 있는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의 '완창 판소리'가 '엄경애의 심청가-강산제'로 올 시즌을 연다.

엄경애(43)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다. 조선 순조 무렵 8대 명창으로 손꼽힌 엄계달 명창의 후손이다. 엄금향 명창을 비롯해 엄금달, 엄혜선, 엄현준 명창 등 선조들이 소리로 가풍을 이룬 판소리 종가에서 자라 소리의 원형을 추구한다.

2002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에서 당시 역대 최연소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엄금향·조상현·성우향·안숙선 명창을 사사한 그녀는 전국 곳곳에서 완창무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엄 명창의 생애 여덟 번째 완창 무대다. 강산제 '심청가'는 세 번째다. 강산제 '심청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고모인 엄금향 명창으로부터 배운 소리다. 이후 성우향 명창을 거쳐 조상현 명창 문하에서 이 소리를 익혔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상현 명창에게 이어받은 남성적인 소리에 다앙하고 정교한 성음 변화를 구사할 예정이다.

'강산제'는 박유전 명창이 조선 고종 시대에 창시한 유파다. 박유전과 정재근을 거쳐 정음진으로 이어져 정권진·

성우향·성창순·조상현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다들어왔다. 서편제의 애잔함과 동편제의 웅장함이 어우러진 소리(제)이다. 이러한 강산제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심청가'다.

강산제 '심청가'는 특히 불필요한 아나리를 줄이고 음악적 구성에 집중한다. 아나리는 판소리 사설에서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일상적 어조의 말로 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표현적이면서 맺고 끊음이 분명한 단정하고 절제됐다.

무엇보다 음악(소리)이 극보다 중심을 이룬다. '심청가'는 효녀 심청이 눈 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바쳤다가 지극한 효심으로 감복한 용왕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내용이다. 탄탄한 구성을 자랑한다. 심청의 탄생, 심청의 성장, 눈먼 심 봉사의 사고, 인당수 제물로 팔려가는 심청, 심청과 심 봉사의 이별, 심청의 죽음, 심청의 환생, 심청과 아버지의 재회, 심 봉사는 뜨는 대목 등으로 전개된다.

올해 '완창판소리'는 매달 한 번씩 진행된다. 20, 40, 50, 60대 등 다양한 연령층과 매력의 소리 스타일을 지닌 창작자들이 나온다. 이번 무대는 안 명창과 함께 명인 정화영·김청만 고수가 함께한다.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와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 또는 전화(02-2280-4114)로 할 수 있다. 2만원.

/정해은기자



톱모델 최소라 '중흥무진' 세계 4대 패션무대 올라

톱모델 최소라(24·179cm)가 국제적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소속사 YG케이플러스에 따르면 최소라는 최근 뉴욕, 밀라노, 런던, 파리 등 4대 패션위크를 중흥무진했다.

이번 시즌 사설을 비롯해 루이비통, 디오르, 람방, 마르니, 프라다, 펜디, 톨체안가버나, 보테가베네타, 베르사체 등 51개 컬렉션 무대에 오르는 기업을 토론했다.

최소라는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았다. 마크 제이콥스 2016 S/S 캠페인 루이비통 2016 F/W 룩북, 코치 윌드와이드 캠페인 모델까지 따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인 모델이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델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모델스닷컴'이 선정한 2016 S/S 톱쇼 포함 순위이 부문에서 아시아인 1위를 차지했다.

YG케이플러스 측은 "최소라처럼 앞으로도 국내 모델들이 해외 컬렉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해은기자

교동아트미술관, '시대의 예술'

'청년! 열정에 반하다' 전시회

교동아트미술관이 '청년! 열정에 반하다'와 '시대의 예술' 전시회를 각각 개최하고 있다.

'청년! 열정에 반하다'는 오는 13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정소라, 황유진, 탁유환 외 5명의 작품 총 7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관이 2011년부터 해마다 이 작품을 주목하다를 통해 발굴한 유망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총 망라돼 전시된다.

또 '시대의 예술'은 오는 20일까지 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故이복수, 박남재 외 7명의 작품 총 10점을 선보인다.

이 전시회는 전북 현대화회의 근간을 이룬 작곡가들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원로·중견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돼 지역의 화화작품 동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한류 알릴 문화피디, 해외 파견

재외문화원 10곳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년간 재외문화원 10곳에 한국문화정보보원(원장 김소연)과 함께 해외문화피디(PD)를 파견한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해외문화피디' 사업은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 부응해 재외문화원에 영상 제작 실력을 갖춘 해외문화피디를 파견하여 각국의 한류 소식을 미디어콘텐츠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알리는 국내외 우리 문화 홍보 사업이다.

지난 4년간 해외문화피디는 933편의 영상과 183편의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해 한류 현장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한국문화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외문화피디가 만든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44만 건 이상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튜브 '문화피디' 채널의 구독자 수가 5천 명에서 9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해외문화피디의 한국문화전도사로서의 활약에 힘입어 올해는 파견지역을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보원이 제작한 '한국문화100' 영문자막 영상을 해외문화피디 파견 지역에 배포해 한류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열리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브라질 리우올림픽에도 해외문화피디가 파견된다. 이들은 경기장 밖의 문화 행사와 각국 재외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한국문화 홍보 행사를 취재하여 올림픽 소식을 물론 우리 문화를 국제외에 생생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해외문화피디가 전하는 세계 각국의 한류 소식은 문체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문화홍보원 및 각 재외문화원 누리집과 유튜브 '문화피디'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김소연 정보원장은 "재외문화원의 해외문화피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문화피디를 더 많은 지역에 파견해 한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전면 해체·보수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전면 해체된다.

오는 22일 해체 보고식을 열고 2019년까지 과학적 보존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북공경내에 위치한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전면 해체·보존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2015년에 걸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그리고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수의 균열과 시멘트 복원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기단부와 시멘트로 복원된 옥개석, 상륜부의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정해은기자

국립전주박물관, 19일 서커스 공연

국립전주박물관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커스 '초인의 비상' 공연을 마련한다.

이 서커스는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에 예술성을 가미한 현대적 감각의 공연으로 오는 19일 오후 6시 박물관 강당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연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오늘부터 18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11일>

<p>▷쥐띠</p> <p>46년생: 구슬수와 시미수가 따르는 운이다. 6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들의 도움을 받아라. 84년생: 작은 것에 대한 성취는 가능하나 욕심을 부리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p>	<p>▷소띠</p> <p>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동기진로에 대해 신중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73년생: 이렇거나 변동수준을 가지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운. 88년생: 작은일에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니 마음을 다스려라.</p>	<p>▷호랑이띠</p> <p>50년생: 매사 무지관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눈앞의 것을 따르거나 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청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운. 86년생: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라.</p>	<p>▷토끼띠</p> <p>51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론 기다려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나타나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다.</p>
<p>▷용띠</p> <p>52년생: 편안한 운이니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다.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무리는 금물이다. 88년생: 편법을 쓰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p>	<p>▷범띠</p> <p>53년생: 좋은운이니 미루지 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5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덕으로 돌아오는 운이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이다.</p>	<p>▷말띠</p> <p>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으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람을 끌라 상대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회를 무르니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p>	<p>▷양띠</p> <p>56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왔던 결실을 맺지 못한다. 68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p>
<p>▷원숭이띠</p> <p>55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는다. 69년생: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운이다.</p>	<p>▷닭띠</p> <p>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실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음속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원령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할이 없겠다.</p>	<p>▷개띠</p> <p>49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다. 59년생: 안정적인 운이다. 사람들과의 모임도 잘하고 금전 운도 좋은 운이니 팔기거래 움직여라.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내손에서 나간것에 대해 아끼워 하지 마라.</p>	<p>▷돼지띠</p> <p>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59년생: 파울, 파식은 삼가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피인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라. 83년생: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p>